

■ 미얀마정부의 CNG 차량 개조프로젝트 및 우리기업의 참여방안

- 미얀마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유수입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04 년 8 월 CNG(Compressed Natural Gas) 차량 개조프로젝트 발표하였음.
 - 1 단계로 양곤에서 운행중인 차량 5,000 대를 2005 년 3 월말까지 휘발유, 경유차량에서 CNG 차량으로 개조예정
 - 휘발유차량 개조는 에너지부, 경유차량 개조는 공업 2 부가 주무부처임.
- 미얀마의 연간 휘발유 및 경유 수입액은 미화 2 억 5 천만 달러에 이르며, 천연가스 수출액은 10 억달러로 미얀마 총 수출의 3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 - 휘발유 및 경유 주수입국은 말레이시아이며, 천연가스 수출국은 태국임.
- CNG 차량 개조프로젝트가 시작된 2004 년 8 월부터 2005 년 1 월까지 휘발유차량 587 대, 경유차량 1,064 대 등 총 1,651 대가 CNG 차량으로 개조됨.
 - 미얀마에서 CNG 차량이 처음 도입된 해는 1986 년이며, 등록차량 중 탱크로리, 오토바이, 앰블런스, 렉서리 카 등을 제외한 실제 CNG 개조 가능차량은 총 15 만대로 추정됨.
- Ever Smile, Shwe Than Lwin 등 민간기업 6 개사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CNG 차량 개조작업에 관여하고 있으며, Aung Yee Phyoe, Myanmar New Technology 등 4 개사는 CNG 키트, 콤프레서 등 관련부품의 대정부 납품권한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
 - CNG 차량으로의 개조비용은 도요타 Dyna 트럭이 254 만짜트(미화 2,820 달러), Hilux 픽업트럭이 110 만짜트(미화 1,220 달러)정도 소요됨.
 - CNG 키트, 콤프레서, 실린더 등 관련부품은 중국, 한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- 미얀마 정부, 2004 년 말에 CNG 차량에 한해 버스 1,000 대, 트럭 100 대, 승용차 100 대 등 총 1,200 대 차량 수입허용 계획 발표
 - 1998 년부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에서 발표된 이례적 조치로 받아들여짐.
 - 미얀마정부의 정보 폐쇄성으로 인해 현재까지의 수입물량 및 수입국 정보는 파악 불가능하나 일본에서 리컨디션된 중고차를 수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.
- 현재 미얀마 여건을 감안할 때, CNG 차량 자체의 수출보다는 CNG 키트, 콤프레서, 실린더 등 휘발유, 경유차량의 CNG 차량 개조에 필요한 부품수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.
 - 미얀마정부는 자동차수입에 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, 상무부 관계자는 관련정보 획득을 위한 무역관과의 면담요청을 거절한 바 있음.

(문의처 : 양곤무역관 김준규 jkkim@kotraygn.com.mm)